

미래 에너지기술 확보를 위한 지식경제부의
R&D 혁신방안 및 에너지 기술개발 방향

이화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hwaung@ketep.re.kr*)

우리나라 에너지 R&D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OECD 국가중 5위, GDP대비로는 2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선진국이 이미 개발한 원천기술에 종속된 기술개발이 주로 이루어져 뒤늦은 기술추격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에너지분야의 국내 원천 및 핵심 특허 확보가 매우 적고, 부품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기존 에너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중이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한 혁신적 한계돌파형 기술확보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11년 사업부터 “시장수요 지향적” 원천기술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또한 “R&D 성공율 98% 패러독스”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 프로세스도 대폭 개편하는 한편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통해 국가 에너지 R&D 기술개발 방향의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개선방향 및 정책방향에 대한 소개를 통해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